

'마늘·양파 기계화 촉진' 현장 의견 듣는다

농진청, 파속채소연구센터서 토론회 열어

마늘과 양파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8일 파속채소연구센터(전남 무안)에서 마늘 양파 기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땅을 비닐로 덮지 않고 재배하는 비닐 무 피복 재배의 필요성과 기술 개발 현황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비닐 피복 재배는 수분 보존, 잡초

발생 억제, 성장 촉진 등 장점이 있지만, 비닐 제거 등의 노동력이 추가로 들어 기계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마늘, 양파 무 피복 재배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와 잡초와 저온 피해, 수분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기술 개발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비닐 무 피복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지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마늘, 양파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8일 파속채소연구센터(전남 무안)에서 마늘 양파 기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울러 실제 비닐 무 피복 재배를 도입한 농업인 사례도 공유한다. 3년 전부터 마늘을 무 피복 재배로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은 "파종 후 5일 정도 마늘 물 대기에 신경 쓰면 피복 재배와 비교해 생산량 감소가 5% 내외로 크지 않다."라고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 육현충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가 마늘·양파 기계화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재 63% 수준인 마늘·양파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1회 대원상 시상식을 열었다.

농어촌공, 제31회 대원상 시상식

양평광주서울지사 안수빈 대리·안성지사 배현우 주임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1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4년 김영진 전 사장의 사제 출연을 계기로 마련된 '대원상'은 효도 정신과 이웃사랑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사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111명의 효행·봉사를 실천한 직원에게 상이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간경화증으로 투병하는 부친에게 간을 이식해 주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양평광주서울지사 안수빈 대리 △안성지사 배현우 주임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원상을 수상했다.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각자 맡은 업무에 성실이 임하면서도 이쁜 가족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숭고한 일"이라며 "이번 시상식이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환경청 전경

전북환경청, 토양환경 평가기관 6곳 일제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부터 관내 6개의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토양환경평가는 환경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평가기관이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범위를 사진에 조사 및 확인해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을 준수해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확보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평가결과 거짓·부실 작성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기관은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해당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석 전북환경청 청장분석과정은 "토양환경평가는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라며 "앞으로 신뢰성과 객관성 있게 토양환경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2024년 수출 2000만불 달성 결의

정기총회 열어 수출활성화 위한 의견 제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7일 지역본부에서 전북농협 수출협의회(회장 양준섭 조합장)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의 2024년 농식품 수출촉진계획과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부장 장지윤)의 농식품 수출

촉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수출확대를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폐지로 수출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대응대책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에 강구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수출정책에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고민하여 농업인이 수출로서 돈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개회기 냉해피해와 잦은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저조하여 수출실적이 1,771만불 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는 2,000만불 달성을 위해 배를 주력으로 하고 수출중점품목인 사인머스켓, 고구마, 딸기에 대해 수출기반부터 수출마케팅까지 일원화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농협-지자체-농진청 등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출활성화에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기여할 것이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은 7일 지역본부에서 전북농협 수출협의회정기총회를 열었다.

전북농관원, 불법농약유통 차단... 지자체와 합동점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관내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상반기 유통농약 합동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

매되는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밀수·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 제한 기준 및 가격 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약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 봉인, 수거 조치 등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부정 농약 사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대학생 홍보대사와 소통

국민연금공단은 7일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와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김태현 이사장이 청년층과 직접 만나 연금제도의 장점 및 사회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에서 선발한 홍보대사 51명과 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제도와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다.

참석 홍보대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 개선 방안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김 이사장에게 질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또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거둔 비결 등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질문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뉴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대학생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대학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들을 직접 홍보활동에 참여토록 해 청년층들이 이야기하는 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미래 가입자인 대학생들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젊은 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